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20>

유럽편 '도시와 주차'

불법주차는 '공공의 적'... 시민이 가꿔가는 도시얼굴

유럽 대부분의 도시, 특히 구도심 내에서 승용차를 모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가려고 하는 장소와 가까운 주차장이 없어 최소 5~10분은 걸어야하며, 상당한 비용 부담도 감수해야한다. 운 좋으면 불법주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수시로 돌아다니는 주차 요원에게 발각될 경우 도시마다 다르지만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도심 내 운전을 되도록 피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모(40)씨는 이민 초기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자신의 아파트 앞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5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고 난 뒤 주차장 아닌 곳에 주차한 적이 없을 정도다.

여기에는 승용차 없이도 불편 없이 도시 내 소동이 가능해야하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전제가 된다. 물론 도로는 모두가 공유해야하는 공공재로, 특정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도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불법주차 차량이 광로, 대로는 물론 이면도로,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곳곳을 차지하면서 도시 문제로 부각된 광주를 비롯한 우리의 도시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 등의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은 유럽 도시의 그것에 비해 단조롭고 불공평하다. 도시 대부분의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없는 노란색 실선을

자동차 없이도 불편함 없는 교통체계 유지

불법주차 이유 막론 공평하고 강력한 처벌

도로는 공공재 인식 확산...대중교통 활성화

곳곳 자치구나 경찰이 그때그때 단속하지만 모든 불법주차차량이 그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도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운전자들 역시 불법주차에 대한 죄의식은 없으며, 운전이 불편을 주는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민선 자치구들은 법으로 정한 처벌을 피하고 불법주정차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는 인식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0만대가 넘는 차량을 소유한 광주의 경우 도로 소통은 물론 자동차로 인한 공해 피해 절감, 연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공공교통수단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도로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보다 폭넓은 시각에

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도시에서도 거리에 주차할 수 있다. 도심 외곽에는 무료 주차가능지역이 있고 도심 내라도 주차가능시간이나 주차가능 운전자를 한정한 무료공간이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다. 대부분 유료거리주차지역이다. P라는 표지판이 있는데, 요금과 그에 따른 주차가능시간이 적혀있고 인근에 주차기기가 있다. 1유로를 내면 1시간 정도 가능하지만 번잡한 중심가의 경우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돈을 넣은 뒤 버튼을 누르면 그 시간만큼 찍힌 영수증이 나오며 이를 운전석 쪽에 잘 보이도록 해두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중심가의 경우는 운전자들이 돈을 내더라도 절대 주차시간이 한정돼 있다.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로 주차시간을 규정해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

과된다. 취재팀 역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구도심 취재를 위해 거리에 차량을 주차한 뒤 1시간이라는 제한시간 때문에 서둘러 되돌아온 바 있다.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해 운전자에게 도로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 주고 있는 셈이다.

도로에는 인근 주차장과 주차가능 면수 등의 정보를 내보내는 안내판이 있다. 주차장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적지에 간 뒤 주차장을 찾기 말고 먼저 주차할 곳을 찾은 뒤 목적지는 걸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갈 것을 권장한 것이다. 주택단지의 경우 자동차의 진입 금지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보행자, 자전거, 노면전차(tram) 등을 적절히 피해야하는 자동차는 잠재적 사고원인자로서 취급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광주발전연구원 김광욱 박사는 "유럽의 도시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구도심의 도로가 신도심에 비해 좁아 구도심의 경우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 반면, 신도심은 비용을 부담하면 비교적 쉽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주차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명확히 나누고, 비용이나 시간 등을 차별화시켜 운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말했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 1 불법주차차량을 볼 수 없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가로.
- 2 네덜란드 맨 하그의 거리주차기. 시간당 1유로.
- 3 프랑크푸르트 시내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차장 정보안내.
- 4 중세 건축물이 들어선 영국 글라스고 거리와 주차 차량.
- 5 도심 외곽인 영국 런던 킹스헨리거리.
- 6 네덜란드 맨 하그 차이나타운 내 거리주차차량.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 방수제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방수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